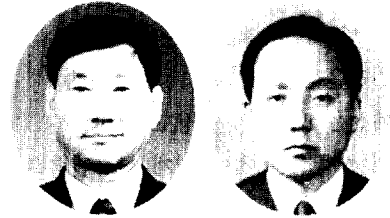


전기학회 조사사업을 되돌아보며



한 송 엽*, 신 대 승**

(*부회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조사이사, 전기연구소 연구위원)

본 학회의 조사위원회 일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되돌아보는 글을 쓸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하신 여러 조사위원님들, 각 조사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학회 사무국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93, '94년에 걸쳐 진행해 온 활동상황을 간추려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위탁 조사연구사업

외부에서 위탁되는 과제가 있으면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통신개발연구원의 통신관련 위탁과제는 93년부터는 없어졌으며 그 대신 KS규격 제정사업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가. 한국공업규격(KS)제정사업 수행

-93년 : 7종(전자부품 테이블 외 6종)

용역비 2,793,000원

-94년 : 14종(아크용접기 통칙 외 13종)

용역비 5,600,000원

규격(안)을 작성하면 관련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후 의뢰처인 공업진흥청에 제출토록 그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나. 원전기술기준 자문사업 수행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기준 작성사업 중에서 전기기기부문의 기술기준을 검토 자문하는 일인데 한국전력기술(주)과 자문협정을 맺고 2년간에 약 3억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로 나누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 전문위원회	: 한송엽
-원자력전기기기 전문분과	: 박귀태
-전기기계기구 전문분과	: 황석영
-측정 및 시험용 기구 전문분과	: 권옥한
-전선 및 전로용품 전문분과	: 광희로

다. 전기용어 제정 및 용어사전 편찬사업 계획

현재 사용되는 전기용어집은 1966년 발간되어 1980년 개정된 것인데, 전기분야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을 추가하여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계나 산업계에서 각자가 임의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용어 사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므로써 전기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분야를 포괄한 용어 5만 단어를 선정하여 한글용어를 제정함(재정시 한글어학자의 자문을 받음)
- 2) 위 5만 단어중 전기공학에 관련이 깊은 3만

단어의 용어해설을 함.

- 3) 용어 5만 단어와 해설 3만 단어를 묶어서 전
기용어 및 해설사전을 편찬함.
- 4) 수행기간은 2년으로 함.
- 5) 소요예산은 약 3-4억원 정도로 함.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현재 한국전력측과 협의
의 중에 있는데 머지않아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합
니다.

2. 기술조사 전문위원회

학회 조사전문위원회는 1991년부터 활동을 개시
하였으므로 아직 일천하다고 할 수 있는데, '93.'94
년 활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조파 저감기술 조사전문위원회(임한석)
:조사보고서 발간
- 리터턴스 모터기술 조사전문위원회(원중수)
:조사보고서 발간
- 전기환경 조사전문위원회(박상희)
:조사연구 진행중
- 전력기기의 절연재료 조사전문위원회(한민구)
:조사연구 진행중
- 초고압 송전기술 조사전문위원회(곽희로)
:조사연구 진행중
- 전동기 제어를 위한 인버터기술 조사전문위원
회(김윤호) :조사연구 진행중
- 전력수요관리(DSM) 조사전문위원회(박종근)
:조사연구 진행중
- 남북전력현황 조사전문위원회(남정일)
:조사연구 진행중

우리학회의 조사전문위원회는 매년 4개 정도 구
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 전기학회를
보면 매년 50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발간
되고 있습니다.

조사전문위원회는 각 조사사항에 대하여, 산업
계, 학계, 연구계 등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학회회
원들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 집약하여 출

판해서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협동연구조사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의 활동
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조사전문위원회 활동을 보고 느낀 점
은, 각 전문위원회의 참여위원은 20명 정도로서 많
은 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 처럼 의견상으로 보이는
데,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는 몇 분만이 참여하고 또
위원들이 모여 그 작성 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출판되는 경우가 있
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협동연구조사체제를 구
축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충실한 자료조사, 보고서의 분담작성과 위
원간의 진지한 토의, 여과과정을 거쳐야만 충실하
고 무게 있는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앞으로는 좋은 방
향으로 자리잡게 되리라 믿습니다.

3. 기타사항

전기학회 조사위원회는 매월 3째주 금요일에 정
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승인, 진행사항 확인, 학회 기술상 심의추천, 위탁
연구조사사업의 계획 및 진행사항 확인처리, 기술
관련 대외공문처리, 기타 조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93년에 10회, '94년에 10회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중 2회는 산학
간담회의 일환으로 제작회사(금성계전, 이화전기)
를 방문하여 개최하였으며 학회에 관련한 산업체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학회회원 여러분이 모두 힘을 모아 조사활동
을 한층 활성화하여야 하겠으며 전기에 관련한, 정부
에서 정책을 입안할 경우나 산업계에서 어려운 일
을 결정할 경우에 학회 의견을 들으려하고 존중해
주도록 위상을 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헌신적으로 학회 조사사업에 참여해 주
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
고자 합니다.